

■ (언론 동향) 2022.7.15. “농민신문” 보도

○ 농협, 3분기 요소비료값 평균 7.5% 인하

- 2분기 국제가격 하락세 보여
- 염화칼륨 등 원료 비료 동결

농협이 영농비 부담 해소를 위해 3분기 요소비료가격을 인하한다. 염화칼륨·암모니아 등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원자재가 들어간 비료는 가격을 동결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3분기 요소비료 농민 판매기준가격을 평균 7.5% 내린다고 밝혔다.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국제 요소가격이 2분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레놀 요소 20kg 판매기준가격은 2만8900원에서 2만6800원으로, 프릴요소 20kg은 2만9000원에서 2만6650원으로 조정한다. 올해 가격 인상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인상 차액의 80%)도 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조정가격은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요소비료가격은 1t당 평균 10만8300원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반기 국내에서 사용할 요소비료가 5만6000t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농민 부담은 61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염화칼륨·암모니아 등이 원료인 비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결한다. 염화칼륨·암모니아 국제가격은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경제제재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비료가격 국제정보지(FMB)에 따르면 6월 염화칼륨가격은 1t당 910달러로 지난해 12월(609달러)에 비해 49.4%나 올랐다. 암모니아도 1t당 1318달러로 지난해 12월(1008달러)에 비해 30.7% 올랐다.

농협은 비료업체와 협의를 통해 요소비료가격은 조금 인하하고 다른 비료가격은 동결하기로 했다. 하반기 수요 증가로 요소가격이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영농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요소비료가격을 약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국제 원자재가격 강세가 지속돼 요소가격 인하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농민의 영농비 절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결정했다”며 “비료업체의 원자재 확보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비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장재혁 기자 >

■ (언론 동향) 2022.7.14. "서울경제" 보도

○ 비즐리 WFP 사무총장, 권영세 예방... "北, 비료가 문제"

- 권 장관 "정치 상황과 관계 없이 대북 인도지원 지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4일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 "비료가 문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이날 비즐리 총장과 면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장관은 또 비즐리 총장에게 "WFP가 그동안 북한의 식량 상황 개선을 위해 일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두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즐리 총장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위기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특히 비료 상황의 경우는 북한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고 현재 존재하는 대북제재들이 좀 더 완화돼 WFP의 사업들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조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FP는 지난해 3월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 등으로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에도 수해 피해 등으로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비즐리 총장을 만나 북한 식량 상황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최근 세계 식량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WFP가 유엔의 최대 식량 원조 기구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은 WFP를 통해 우크라이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위기국에 인도적 지원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강동효 기자 >